



재외동포청,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위문품 전달

- 이기철 청장 “동포들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보듬겠다”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연말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 거주하는 3천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.
-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21일 8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며 동포들을 격려했다.
 - 이날 행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, 주훈춘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자노인회장과 이 마을 사할린 동포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.
- 이기철 청장은 전달식에서 “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와 그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할린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동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 - 이어 “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런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, 동포들이 어디 있든지 홀로 아프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‘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위문품 전달사업’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1994년 한·일 정부의 ‘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’을 계기로 고국으로 귀환한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.
- 한편 재외동포청은 사할린 동포뿐 아니라 해외 위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, 원폭 피해 동포, 파독 근로자, 고려인 동포처럼 소외된 재외동포를 모국에 초청하는 등 국가가 재외동포들의

결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‘동포 보듬기 사업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서기관	문경남	032-585-3196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주무관	안민지	032-585-3205